

사진기사의
당장 것

“엄마! 나 이 학교 다니고 싶어요”



삼자 안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꼬마 아이와 삼자 안으로 손을 뻗어 넣은 엄마. 굉장한 보물을 뽑는 듯 진지한 모습의 모자(母子) 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면 언뜻 경품 추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풍물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 같지만 지난 4일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만난 2009학년도 입학생 추첨 풍경입니다.

아이 학교 진학을 위해 찬바람을 뚫고 체육관을 찾은 학부모들은 추첨을 위한 ‘뭇 초’를 위해 두근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다림을 감내한 학부모를 웃고 울린 건 상자 속에 담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당첨’이라고 쓰인 종이에 함박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만세 소리가 체육관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백지를 뽑아낸 학부모는 아쉬운 한숨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총총히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웃고 웃다니... 인적 드문 시골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음악 감상은 물론 사진 촬영과 전송도 가능한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 조금은 어색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감가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미리 학교를 찾아온 예비 입학생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은 디지털 기기들로 인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도 수많은 기계들이 ‘똑딱’하고 해치워 냅니다.

오랜만에 본 ‘수동식’ 추첨 모습이 아날로그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작업남의 시계

한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앉은 매력적인 여자에게 반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자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귀에 대고 뭔가를 듣는 시늉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여자가 물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에 남자가 그윽한 눈으로 여자를 보면서 말했다.

“이 시계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시계입니다. 특수한 시계라서 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여자가 물었다.

“그 시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계는 당신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군요.”

여자가 새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시계 고장이 난 모양이군요. 난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남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이 시계가 아마 한 시간쯤 빠른 것 같군요.”

▲귀가의 이유

이른 새벽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남편이 대문에서 아내와 마주쳤다. 아내는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와이셔츠에 티슈타크를 묻히고 들어오자 화가 났다.

“아니 이게 누구신까. 새벽 6시에 인사불성이 되어서 들어오는 데는 뭔가 훌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연히 이유가 있다 마다! 내 아침밥은 어디 있지?”

▲아내의 심경변화

남편이 반찬 투정할 때

애 하나 : 맛 없어? 기다려 봐. 저녁에 맛 있는 거 만들어 줄게.

애 둘 :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애 셋 : (반찬을 건어가며) 배가 불렀군!

잠자리를 할 때

애 하나 : 오늘 또? 당신 힘들까 봐 걱정돼.

애 둘 : 이런데 힘 그만 쓰고 돈 버는데나 힘 써!

애 셋 : (발로 걷어차며) 너 짐승이지?

와이셔츠 다릴 때

애 하나 : 이리 쥐. 남자가 이런 걸 왜 해?

애 둘 : 내가 할게.

애 셋 : 당신이 좀 해. 애 뒤치닥거리 할 것도 많은데.

애 둘 : (빨래 후 주름이 주글주글한 옷을 내밀며) 알아서 입고 가세!

남편이 감기 걸렸을 때

애 하나 :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정에서 있는 거지. 자 밥 먹고 약 먹어.

애 둘 : 밤새 술 마시고, 잘 때 피는데 안 아픈게 이상하지.

애 셋 : (콧물 훌쩍거리며 소리만 들려도)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부자 아빠

세 명의 학생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을 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우리 아빠는 돈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나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에 보내 준다고 하셨어.”
그 얘기를 들은 두 번째 아이가 말했다.

“우리 아빠는 그보다 더 부자라서 미국에 있는 호화 기숙사 학교에 보내준다고 그러셨어.”
그러자 남은 학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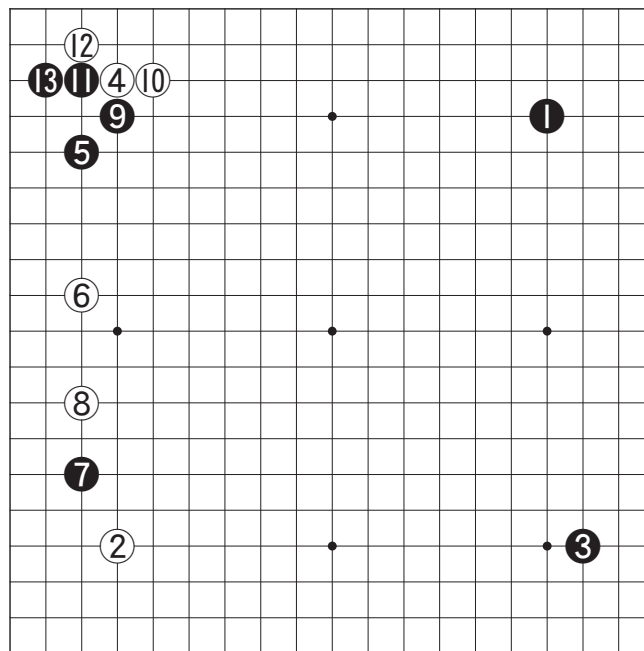
“우리 아빠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공부 를 하지 않아도 돼.”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특이한 종목

페어부 결승 1보(1~14)

白 함영우·송예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바둑종목에서 페어부는 조금 특이한 종목으로 남녀가 한팀이 되어 번갈아 착수하는 방식이다. 탁구나 배드민턴으로 치자면 혼합복식인 셈인데 최근에는 세계 페어대회가 열릴 정도로 바둑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앞으로 정규종목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종목도 역시 여성부가 강한 경기도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전남팀이 대불대학교의 바둑학과 창설에 힘입어 금메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불대학교 바둑학과에는 이 판의 함영우군과 송예슬양을 비롯한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들이 다수 입학하여 이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전남팀이 페어부는 물론이고 일반부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오창석과 이수빈도 연구생 출신으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학생으로 강자들이지만 최근 전국대회에서 수차례나 우승을 차지하며 아마바둑계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함영우와 여류바둑의 강자 송예슬의 우세가 점쳐지는 결승전이다. 페어바둑은 서로간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백 14까지 서로 조심스런 출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9일(음 11월 12일 癸未)

子 36년생 가벼운 극전이 있다. 48년생 갑작스런 재난이 오리니 철저 대비하라. 60년생 결집은 빠르게 실행은 여유 있게 움직여라. 72년생 계획한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라. 84년甲子생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니 옛일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2, 39

丑 37년생 꾸준히 전진하라. 49년생 남을 도울 때가 행복하니 자신을 베풀어라. 61년생 눈과 귀가 부드러운 하루로. 73년생 도처에 괴로움이나 고통은 행하라. 85년생 붉은 가운을 생각하며 밭을 갈아내 결실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3, 38

寅 38년생 상황이 급변하니 적절히 대처하라. 50년생 상황이 어려워니 심상을 편히 하라. 62년생 소망은 꿈꾸는 자만이 갖는다. 74년생 양보하면 승사도 피해가니 서로서로 양보하라. 행운의 숫자 : 04, 33

卯 39년생 옛 일이 괴롭혀온다. 51년생 옛 친구가 찾아오니 마음이 가볍다. 63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한 바짝 다가온다. 75년생 인생의 맛과 멋을 아는 시기이니 자신 있게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 05, 26

辰 40년생 자녀는 자신의 꿈이나 꿈과 같이 키우라. 52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러움은 내 차지이다. 64년생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는 하루다. 76년생 처가쪽 사람과 돈거래에 불화가 떠돈다. 행운의 숫자 : 08, 25

巳 41년생 할 일이 많으니 바쁘게 움직여라. 53년생 협상이 難題로 다. 양보하며 진행하라. 65년생 협조하면 시비는 사라진다. 77년생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라 재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 10, 27

午 42년생 형제 부모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하라. 54년생 교통사고 조심하고 음주운전 절대 금물이다. 66년생 달리는 상대가 나타나 원하는 대로 다 주리라. 78년생 붉은 고달프니 수양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2, 29

未 43년생 바라던 일이 실현되니 추진되니 주의 할 것은 있다. 55년생 발전이 있으나 하던 일에 매진하라. 67년생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살펴보라. 79년생 부부간에 외출하고 즐겁게 보내라. 행운의 숫자 : 06, 39

申 44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 시비는 본인의 부주의이다. 56년생 속은 터지니 서두르지만 얌연 대고는 없다. 68년생 속전속결 전략화석 급한 일이 속출한다. 80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불리한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7, 36

酉 45년생 시비는 필연으로 화해로 처리하라. 57년생 역사사지상 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69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온다. 마음을 다져라. 81년생 오후의 외출은 좋은 일을 부르노니 즐겁게 나가보라. 행운의 숫자 : 13, 37

戌 46년생 내적인 실수에 마음을 써야한다. 58년생 자기의 위치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을 집중하라. 70년생 자신은 광대이니 남의 집 잔치에 춤추지는 말아라. 82년생 집안이 불안하니 중심을 잃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5, 38

亥 47년생 춤추고 노래는 하나 마음 또한 즐겁다. 59년생 타인과 시비는 중사를 부른다. 71년생 해질녘에 실물수니 마무리를 잘하라. 83년생 화재가 보이니 꺼진 불도 다시보라. 행운의 숫자 : 19, 4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206>

What can we do to kill some time?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A : What can we do to kill some time?
B : We could go for some ping pong.
A : Nah, How about a movie?
B : Okay.

A :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B : 탁구 게임을 하러 가는 것은 어때?
A : 싫어, 영화 보는 것은 어때?
B : 좋아.

* kill time : 시간을 보내다
* we could ~ = Let's ~
* go for ~ = ~하러 가다
* ping pong : 탁구게임
* nah = 싫어 (=No)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06>

足が痛くはありませんか

발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A : 金さん、足が痛くはありませんか。
B : 慣(な)れないもので、少し痛いですね。
A : じゃ、我慢しなくてもいいですから、どうぞお薬に。
B : 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 : 김씨! 발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B :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아픕니다.
A : 그럼 참지 않아도 되니까, 자, 편안하게...
B : 아야, 감사합니다.

慣(な)れる : 익숙해지다
我慢(がまん)する : 참다, 견디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83>

我弟弟今年十岁了。

내 남동생은 올해 열살입니다

A: 你弟弟今年几岁了?
Ni dìdì jīnnián jǐ suì le?
니 디디 닐니엔 지 수이 르?
B: 我弟弟今年十岁了。
Wǒ dìdì jīnnián shí suì le.
와 디디 닐니엔 십 수이 르?
A: 你妹妹今年几岁了?
Nǐ mèimei jīnnián jǐ suì le?
니 메이메이 닐니엔 지 수이 르?
B: 我妹妹今年九岁了。
Wǒ mèimei jīnnián jiǔ suì le.
와 메이메이 닐니엔 지구 수이 르?

今年: [jīn nián] 올해, 금년
岁: [suì] 살, 세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

한자 이야기 <923>

盲人瞎馬(맹인할마)

눈멀 맹, 사람 인, 애꾸눈 할, 말 마

맹인할마(盲人瞎馬)란 장님이 애꾸눈 말을 타고 달린다는 뜻으로, 위험한 행동을 비유한다.

동진(東晉)의 화가 고개지(顧愷之)는 그림뿐만 아니라, 박학다재(博學多才)하여 문장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또 성품도 소탈하여 우스갯소리로 주위를 웃기곤 했다. 어느 날 고관인 은중감(殷仲堪)의 집에서 환현(桓玄)과 어울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맨 먼저 입을 연 환현은 ‘차궁으로 썰을 일어 칼로 불을 때서 밥하기’ 즉 전쟁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은중감은 ‘백 살 먹은 노인이 마른 나뭇가지 기어오르기’ 즉 행동이 불편한 노인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마지막에 고개지는 ‘우물의 도르래 위에 어린아이가 누워있기’라고 하였다. 그때 옆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 하나가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 ‘눈 먼 사람이 눈 먼 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언덕가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世說新語)

우리의 인생도 마치 ‘맹인할마’와 같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중에 눈이 먼 상태로 눈이 먼 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